

#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격돌

### 전주시·라스트포원, 29일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제14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무관중 개최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팀 배틀을 펼치는 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라스트포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오후 6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제14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약 30여 팀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총상금은 2,000만원 규모로,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액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비보이 크루 '라스트포원'은 이번 대회의 기획에서 홍보, 진행까지 도맡는다. 비보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대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회는 비보이대회 전문 MC인 SNPA(박재민), DU LOCK(두락이), DJ에는 비보이 배틀 현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베테랑인 WRECKXX(최재화)가 참여한다.

심사위원에는 대한민국 비보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세대 비보이부터 현역 비보이 및 비걸 등 총 6명이 참여해 공정성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들은 심사뿐만 아니라 오프닝 공연을 통해 화려하고 흥겨운 특별 무대도 선보인다.

또 2018 비트박스 아시아 챔피언인



전주시와 사단법인 라스트포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오후 6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제14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잭팟(JACKPOT)'과 국내 걸스합창 최강자 '레이디바운스(LADYBOUNCE)', 2019년 BEIC 퍼포먼스 대상 수상자 락 앤롤(LOCK 'N' LOL) 크루 등 다채로운 게스트 공연으로도 흥을 돋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전주 비보이그랑프리 유튜브 채널과 미디어월(광고용 LED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 다음 달 중 JTV 전주방

송을 통해 녹화중계로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올해로 14회째인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유일의 팀 배틀 형식의 대회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비보이 문화를 함께 즐기고 비보이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창 대회 위원장(전주시 기획조

정국장)은 "전주시와 라스트포원이 함께 노력해 브레이킹 종목이 2024년 파리에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며 "라스트포원과 적극 협력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라스트포원'의 독일 세계대회 우승을 계기로, 지난 2007년부터 열리고 있다. /김윤상기자

## 먹는 물 수질검사 능력 '매우 우수'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검사 최상위 평가 17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 '만족' 획득... 2년 연속 만점 기록

전주시의 먹는 물 수질검사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최훈식)는 최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106개의 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시험은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로, 평가항목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적합기관이 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18일 17개 미지의 시료를 바탕으로 6명의 연구진이 각각의 항목을 분석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결과 17개 항목 모두 최고 등급인 '만족'을 획득, 환산점수 최고점인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점을 달성한 것으로, 수질 검사 분석체계와 분석 장비, 분석

자 능력 모두 국내 최상위기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국내 최고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수질관리 행정에 대외적 공신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가 앞서 시는 첨단 분석기기 50여종에 대한 정도관리/정도검증(QA/QC)을 자체 실시하고 분석 장비의 정밀도와 정확도, 민감도를 보장하는 등 기기 안정화 작업에 주력했으며, 반복적인 예비·추정·확정 실험도 진행했다.

최훈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먹는 물 안전성 조사와 분석, 연구 과정을 거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공동주택 수질검사 인증제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돕는다

### 전주시, 1만여 가구 50만원 지급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2019년·2020년 대비 올해 1~5월 소득 감소한 가정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가 지원된다.

전주시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1만여 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과 대비해 올해 1~5월에 소득이 감소한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봉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서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와 5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50만 원이며,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수급 대상자의 경우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10~28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세대주나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급 대상인 시민분들의 많은 상담 및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전주시가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상은 가리비, 갈치, 냉장명태, 홍어, 활장돔 등 주요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와 음식점이다. 점검 받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업체에는 현장 입건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반딧불이·쉬리 캐릭터 포토존 설치

### 야외공간에 호랑나비·야생화 이야기 담은 배너 설치

전주자연생태관은 야외공간에 '호랑나비의 일생'과 '전주전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 이야기를 담은 배너와 반디·여울이 캐릭터를 살린 포

토존을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으로 휴관이 되더라도 방문객들이 야외에서도 생태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시설에 있던 전시내용을 배너에 담아 외부에 배치했다. 또 자연생태관 입구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자연생태관 캐릭터인 반디(반딧불이)와 여울이(쉬리)를 활용한 포토존을 만들었다.

향후 전주자연생태관은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및 생태환경 변화 등 환경문제를 알릴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환경교육사업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자연생태관 관계자는 "환경과 생태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로 온라인 생태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해설사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입장객들에게 수준 높은 생태학습 해설을 진행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